

## “ ‘하나님의 도성’ 건설 위하여 ”

### ■ 이종윤 원로목사

- 두 도성의 이야기 -  
 한때 세계의 주인 노릇을 하면서 천년에 걸쳐 굳게 지켜졌던 로마제국이 멸망하게 된 원인은 아직도 역사가들에게 여러 가설을 제시케 하고 있다. 로마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옛 신(神)들에 대한 예배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이유는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 신앙 때문이라 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AD412년 경 북아프리카의 어거스틴은 그의 저서 하나님의 도성(De Civitate Dei, The City of God)이라는 책을 통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용기 있는 변론을 펼쳐 나갔다. 그의 22권의 긴 책에서 첫 열권에서는 옛 신(神)들이 로마를 지켜주지 못했음을 나타냈고, 그 이유는 로마는 많은 군대의 침략과 자연재해를 받았으며 문화를 방어해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교도 신(神)들에 대한 예배는 로마를 악의 구렁이로 몰아넣었다 한다. 그리고 로마는 자체의 부패로 멸망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다음 열두 권의 책에서는 그의 역사철학을 전개시키면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하와의 타락 이후 아벨과 가인의 후손으로 나뉘어 두 도시가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멸하면서 자기 사랑으로 채워진 도시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아를 경멸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진 천상의 도시라고 설명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구성된 교회와 고대의 바벨론, 로마와 같은 도시 문화를 대표하는 지상의 사회로 구분하고 마침내 지상예로의 도시는 사라져 버리게 된다 한다. 어거스틴은 두 사회의 기원과 역사 그리고 마지막 운명에 대해 추적하고 있다. 하나님의 도성은 종교 개혁시대에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은 두 개의 왕국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형성하였다. 요즘 같은 세속적인 것과 거룩한 것 사이에 구별이 애매모호한 때에 어거스틴의 두 도시 개념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면서 바알신을 섬기는 북한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조국 대한민국을 건설하여 도시마다 산간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나라가 그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조명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의 후에 노아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연결되고, 뱀(마귀)의 타락한 후손 가인 라멕 그리고 바벨론으로 대칭되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대립으로 역사는 흘러간다. 세속의 도시와는 대조적인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 세상 왕국이 눈에 보이는 반면에 거룩한 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해도 환영이 아닌 실제로, 그것은 세상 도시는 사라져 버려도 그 나라는 확실히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곳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셨다.

인간 모두는 세속의 도시에서 태어났으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새로이 태어남으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 “사람이 거둔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셨다. 느부갓네살이 7년에 걸친 그의 형벌이 끝나고 그의 총명이 자기에게로 돌아온 후 이전에는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하나님을, 이제는 자신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했다.

우리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천상의 도시의 시민으로서, 무너질 도성을 세우고 있는 북녘 땅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쁘게 부르는 하나님을 증거하여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건설하여 세계복음화의 교두보가 되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기도하자.

-한국장로신문 2015년 6월 27일 발췌-

##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예배에 함께 하시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과 나눔 속에서 기쁨을 찾고 천국백성이 되는 총만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번 주 목~금 양일간에 사랑의 바자가 진행됩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교회 회복과 새로운 출발의 감격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일 1,2,3부 및 찬양예배 시간에 제공되는 실시간 온라인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실시간 영상예배 접속방법은 이전과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channel/UCziHchZPo8YwmR9UYpoXJrA>

주일예배 순서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 예배 순서 및 영상예배 지침

[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925\\_sermon.jpg](http://www.seoulchurch.or.kr/upload/20220925_sermon.jpg)

## 서울교회 당회 드림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QR코드 

부 목 사 장석남 조원영 안용곤 조동수 김익환 전도사 박미라 준전임전도사 강남희 이대원 교육전도사 허은 정기성 김예지 협동목사 심우진 전재홍 양정호 선교사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해경, 양재성·이현주(카자흐스탄), 이경엽, 조남혜(방글라데시), 조범연·김희정, 우상식·김정욱(인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외국인 노동자), 박명성(총회), / 이삭, 비스타파, 사지, 에녹(인도), 스프로토바로이,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롬, 수란존(방글라데시) / 김태식, 윤왕모, 이금순, 김명일(군선교)
---

	전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 종 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Senior Pastor 손 달 익 Rev. Son , Dal-ig 0628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길 7 / Samseong-ro 51-gil,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

### ■ 요나 3:1-10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적 선민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선민의 특권의식은 강화되었지만 선교적 사명은 외면하는 일이 이어지면서 변질된 선민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다른 민족들 사이에 장벽을 만드는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바로 이런 역사의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앗수르와 니느웨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말씀을 전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으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받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말씀이 요나의 전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니느웨성의 요나처럼 선교적 사명을 다해야할 소명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 1. 왜 니느웨로 보내시는가?

앗수르와 니느웨의 죄악을 나훔3:1에서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며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지적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가장 포악하고 교만하며 우상숭배가 극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를 이곳으로 이끌어 오시고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부러 찾아가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병자, 거라사의 광인,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 등을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들의 공통점은 처지가 매우 절망적이고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긴급한 것을 아시고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급박한 구원의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가장 긴급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워했거나 무척 싫어했지만 긴급한 구원의 필요성이 있는 이웃을 향해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 2. 하루 전도의 기적

요나는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하루만 전했습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무성익한 전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가축들도 회개의 대열에 합류시켰습니다. 이들의 회개가 지닌 진정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좋은 신앙, 좋은 교회의 모습을 세상이 칭찬할 수 있는 가치를 지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으로 끝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성도들로 가득해야 합니다. 세상의 도덕적 가치, 사회적 평가를 뛰어넘는 영적 차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며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세계의 희망은 회개하고 변화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회개의 말씀을 힘써 전해야 하고 ‘일어나 가서 외치라’는 말씀에 우리는 언제나 순종해야 합니다.

### 3.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돌이키심과 니느웨의 구원이 선지자 요나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여호와와 원한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이다 하니..’ 원수 니느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고 싶었는데 다 틀렸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품안으로 들어오는 그들을 결코 외면하시거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용서하십니다. 이는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너를 위해서라면 십자가에 죽어도 좋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부디 돌아오기만 해다오.’ 그리고 또 다른 섭리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방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우리의 사명도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만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요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구원 받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요나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번 주 손달익 목사 설교 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 주 일 예 배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동수 목사	노계현 장로
II 오전 11시	안용곤 목사	김혜연 장로
III 오후 2시	김익환 목사	김익환 목사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로 부름 Call to Worship ...시 148:13-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9(1절)...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21(시 34)...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369(487)...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은 3:1-10...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뜻을 돌이키는 하나님”... 손달익 목사  
 \* 찬 송 Hymn .....520(257)...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 인도 김익환 목사, 설교 허창범 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시 126:5-6 ..... 인 도 자  
 찬 송 ..... 254(186) ..... 다 합 께  
 기 도 ..... 유동훈 집사  
 찬 송 ..... 505(268) ..... 다 합 께  
 성 경 ..... 롬 8:2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 설 교 자  
 \* 찬 송 ..... 531(321)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 수요일예배

부 오전 11시 ·인도: 안용곤 목사  
 II부 오후 7시 ·설교: 손달익 목사  
 기 도 ...I부: 임송자 권사 II부: 김인아 권사  
 성 경 ..... 왕상 8:12-21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말씀대로 이루셨다” ... 설 교 자

##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홍혜란·김양연·박수강·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전재홍 목사

## 서울가족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시 피아니스트: 김복희2  
 설 교 ..... 손달익 목사

##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4시 30분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 교회소식

### 모임

- 바자 준비 모임 / 25일(주일) 오후 12시30분 802호
- 권사회 월례회 / 25일(주일) 3부 예배 후 101호

### 알림

- 101호  
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청년부 예배 : 오후 2시
- 102호  
소망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10분-11시
- 403호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501호  
중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601호  
초등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2호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후 12시10분
- 603호  
사랑부 : 주일 오전 10시30분-11시30분 / 청년1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세례교육부 : 주일 오후 12시10분 / 청년2부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701호  
유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2호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706호  
유아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12시10분
- 세례식 신청 - 금년도 네 번째 세례식인 10월 세례(입교, 유아세례)식이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습니다.

\*입교와 유아세례 신청기간: 9월 18일(주일)-10월 2일(주일)까지  
 \*입교와 유아세례 문답 및 교육: 10월 9일(주일)  
 \*신청접수처 : 교육부서 및 교회 사무국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새가족소개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성 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정재이	6-1	고등부	장해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p><b>장례</b></p> <p>1. 故 이명옥 님(1교구 옥희숙 권사의 모친, 임대훈 집사의 장모) / 9월20일(화) 별세, 9월22일(목) 발인</p>
---

지난주 출석현황(인터넷 영상예배 포함)				
주일1,2,3부	찬양예배	주일예배 합계	수요일예배	새벽기도
1,636명	413명	2,049명	366명	1,821명



## 개인주의의 위기

지식 사회일수록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다. 개인이 없는 전체나 단체는 존재하지도 않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집단보다 중요시 하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다. 하나님 나라도 결국은 개인적인 것이 될 것이다. 부모의 신앙으로 자손이 구원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성경의 원리이다.

이처럼 개인이 중요하지만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우 천박한 상태에 빠지게 되며 기복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강조케 됨으로 사머니즘과 같은 비기독교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개인주의가 강조됨으로 공동체 의식도 무너지게 되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역사도 저해를 받게 된다.

한국 교회가 몸 되신 교회 개념을 충분히 인식하여 개인을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주의나 개교회주의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기도하자.

-이중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

청 결 유 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 힘씁시다.
에너지 절 약	불필요하게 전기를 켜놓은 복도와 화장실 전등을 끄시다. 방을 사용한 후 나올 때 반드시 전기(전등, 플러그, 마이크 등)를 끄고 나옵시다.
주 일 성 수	주일은 예배와 전도하는 날입니다. 가급적 회의를 줄이시고 예배와 전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	--	--	--	--	--	--	--	--

찬 양 대						봉 헌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서지원	장희원	윤주일	가브리엘		
II부	할렐루야	최유현	차주연	김양연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유태왕	전지희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박래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은 3:10)		
수요I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금주의 성구			
수요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